

협회소식

협회장동정



- ▷ 8월 1일 :한농연 5.31 지방 선거 당선자대회 행사개요 (양재 at센터)
- ▷ 8월 16일 :업무협의 (서산 가축개량사업소, 청양군 축산기 술연구소)

- ▷ 8월 18일 :축단협회의 (제2축산회관)
- ▷ 8월 21일 :전체직원회의 및 한우 PG시연회(본회 회의실)
- ▷ 8월 22일 :경상북도 종돈농가 종돈개량사업 업무협의 (경상북도 경산시)
- ▷ 8월 23일 :축단협 주최 "도축세관련 공청회" 참석
- ▷ 8월 24일 :축단협 주최 "축산인 결의대회" 참석 (이천 설봉호텔)
- ▷ 8월 30일 :농업근대화 100주년 기념식 (농촌진흥청)
- ▷ 8월 31일 :젖소품평회 참가업체 부스설명회(본회 회의실)

한우 번식우 개체관리프로그램 자체 시연회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21일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사업추진 경과보고 및 한우 번식우 개체 관리프로그램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본회 한우개량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번식우개체관리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1년

여 동안 농가의 시범운용과정을 통한 현장검증에 의해 최종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게 됨으로서 이날 전 직원이 자리한 가운데 시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시연회는 9월 8일 축산회관 지하 대회의실에서 300여명의 축산관계자 및 농가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2006년도 한우종축생산농가 기술교육"에서 공개 발표하기로 되어 있어 사전 검증 발표회의 의미를 둔 것으로 개발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주문하여 공개 발표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에 개발한 "한우 번식우개체관리프로그램" 개발자는 농장 위주의 계획 교배시스템(혈통+능력) 개발에 무게를 두고 발정·분만 등 번식예고 및 일정관리, 개체별 개량형질 평가, 종모우별 혈통·능력 조회, 기타 일반적인 번식우 관리기능 등을 부여한 시스템 개발로 그 동안 번식우 개체 관리카드를 사용한 관리에서 벗어나 좀더 선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컴퓨터를 잘 모르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매일 일기형식의 개체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1세기 선진 경영을 지향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9월 8일 서초3동 소재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06년도 한우종축생산농가 기술교육"에서 본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석하여 들어본다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주제어 선정

"품평회를 뜨겁게! 챔피언을 품안에!"

지난 7월 20일부터 27일까지 본회 직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2006 한국홀스타인품평회 주제어 선정에 "품평회를 뜨겁게! 챔피언을 품안에!"가

협회소식

선정 되었다.

일본 구마모토현 낙농협동조합 임직원 본회방문



지난 8월21일~23일 일본 구마모토현 낙농협동조합 임직원 12명이 한국연수기간 중 본회를 방문하여 한국의 낙농상황과 개량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양국의 낙농상황이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일정 중 경기 이천의 흥천목장(대표 안내역)과 경기 용인의 농도원 목장(대표 황병익)을 방문하여 한국 낙농의 현주소를 확인하면서, 후계자 문제와 우수소비축진 등의 내용으로 진지한 시간을 가졌다.

집중호우 피해 축산농가 격려금 전달 및 위로방문



본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7월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평창, 횡성, 홍천 지역 축협 및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살피고 피해 축산농가를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미국NSR 협회 내방

지난 3일 미국 NSR의 마케팅 담당자와 아이오와 주립대 육종학 박사를 비롯한 4인의 방문단이 본회 업무협약차 방문하였다.



이들은 본회(종돈개량부)의 협조를 얻어 국제세미나 개최와 국내 종돈의 개량방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국내GGP농장과 미국GGP농장과의 유전능력 평가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제안과 우리나라 종돈수입기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종돈개량부 장흥기 부장은 세미나 개최 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이미 계획이 있으므로 하반기에 고려해 볼 것이고, 양국간 유전능력 공동평가에 있어서는 국내GGP농장의 동의가 사전에 있어야 하고 농장 간 유전자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소식

(주)중앙진테크,

미국 최대정액 제조 공급회사인 ABS사의 국내 공급사 중앙진테크는(대표 배규익) 8월에 발표한 ABS SIRE SUMMARY TPI 성적에서도 5월에 이어 불턴(29H011111)이 1등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체형과 생산형질측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불턴은 외모 +2.29, 유방 +2.78, 지제 +2.15의 체형 3개 형질과, 생산형질에서 모두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주위의 감탄이 자자하다고 밝혔다. 또한 젯스트림(29H010792)는 외모 +1.72, 유방 +2.25, 지제 +1.35의 체형 점수로 미국 내 TPI 성적에서 5위를 차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문의:한수이남, 충청도 지역: 011-397-2433

한수이북, 강원도 지역: 011-414-2834

전라도: 010-2255-2255

경상도: 010-2701-2667

다연산업(주),

20년간 축산낙농기자재 개발 및 전문업체로서 축산농가 발전에 힘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다연산업은 FRP 소재를 이용한 쿨링시스템, 자동급수기 등의 제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산농가를 한번 더 생각하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전시회에서 제품의 우수성

<다연 산업 취급제품>

제품명	용도 및 특성	비고
다연 501 축분건조기	34M까지 풍량이 멀리 간다	낙농, 양돈, 양계용
다연 502 축분건조기	풍량이 옆으로 넓게 퍼진다	"
다연 503 이동식형	이동 및 각도가 자유롭다	"
급수기 A형	축사 중앙급수용	대형, 중형, 소형
급수기 B형	물튀김 방지, 축사 외곽용	"
다연E형 다용도(1구개 방)	축사내외에서 사용 가능	한우, 젖소, 사슴, 말
다연 D형(2구개 방형)	축사 중앙 또는 축사 외부	88×48×42=55L
다연 D형(물튀김방지용)	축사 한쪽에서만 급수	물튀김 방지형
다연 이온운풍기	공기 중 바이러스 박멸	저소음 및 이온방출
다연 보정틀(반자동)	잡김 부분 곡선 처리	주문제작 가능
다연 텐덤 시스템	진공 발생기 1~2호 설치	고장에 대처

이 인정되어 국내 수요는 물론 일본까지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축사용물통을 포함한 특허증 4건, 환기용 축류팬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증 5건, 의장등록증 20건을 획득하였으며, 2004년 7월에 신기술 벤처기업등록, 2004년 11월에는 ISO 9001을 획득하는 등 품질경영 인증업체로 인정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우수전사업체상을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수상하였으며, 모든 제품은 자체연구 개발된 특허품만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 지정수정사회 आय회 개최

서울우유 지정수정사회(회장 윤창호, 총무 김명호)는 2006년 8월 10일 경기 광주시 중부면 은고개 벽수장에서 수련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우유 이상만 이사, 대주교역 이태희 이사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우유 지정수정사회는 10년 이상 역사를 가진 단체로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우수정액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진양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1일 명예교사 강습회 성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8월10일(목)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40여명의 여성 낙농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업계소식

명예 교사 강습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강연 기술과 명예 교사 강연시 활용될 교육내용에 대한 열띤 교육의 기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본 행사에 앞서 조옥향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는 우유의 잠재 고객인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우유섭취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인 여성 낙농인들이 먼저 찾아가 우유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는 시기인만큼, 1일 명예 교사 활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1일 명예 교사를 통한 우유 홍보활동에 많은 여성 낙농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강습회에 참가한 여성 낙농인을 대표하여 전북 순창의 윤애경씨에게 1일 명예 교사 교육 수료증을 증정하였다고 전했다.

앞으로 본격적인 1일명예교사 활동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유소비 확대에 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협컨설팅부, 지도계 직원 전문교육 실시

농협 축산컨설팅부(부장 강두승)가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착유시설 컨설팅 서비스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사양관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축산 컨설팅은 올해 낙농부문의 경우 TMR 사양관리 서비스와 착유시설 컨설팅을 새롭게 도입, 지난 3월 낙농조합과 각 지역 축협 지도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우유, 부산우유 등 대형 낙협을 제외하고는 일반 업체에 의존돼 왔던 착유시설 컨설팅이 본격 실시되면서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대구낙협 조합원 심상영(경북 고령)씨는 “조합에서 착유시설을 점검한다길래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맥동수도 조정해주고 진공펌퍼도 수리해서 교환해주는 등 섬세한 서비스에 놀랐다. 38년간 낙농을 경영

하며 이 같은 서비스는 처음 받아 본다”고 말했다.

현재 축산컨설팅부가 전개하고 있는 낙농 관련 컨설팅은 TMR 사양관리의 경우 72농가, 착유시설 컨설팅의 경우 3백여 농가로 향후 이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축산컨설팅부 컨설팅지원팀 운영환 차장대우는 “그동안 사양관리 서비스에 집중됐던 농장 컨설팅을 착유시설 등으로 확대하면서 농가들이 만족하고 있다”면서 “각 조합 지도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이론 교육은 물론 목장의 실습교육까지 접목된 체계적 교육이 실질적인 농가 컨설팅에 큰 보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56억 투입 축산분뇨처리 개선

청원군이 축산분뇨처리의 개선을 위해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한육우와 젖소 등에 21억원, 돼지사육 농가 등에 35억, 모두 56억을 투입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축산업 관계자와의 ‘축산분뇨처리방안 보고회’를 갖고 오는 2009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등 1200농가에 21억원을 투자해 퇴비사 설치와 농업기술훈터에서 생산하는 복합미생물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돼지의 경우 97농가에 35억을 집중투입해 SCB 공법과 고액분리처리시설을 도입하고 미생물제와 은나노 제제를 공급하는 등 저장조 보완 및 폭기조를 설치할 계획이다.

청원군은 현재 한·육우 2300농가에서 3만40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 중 젖소는 205농가 1만두, 돼지 97농가 8만7000두, 닭 565농가 25만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분뇨처리의 형태도 톱밥짚집우사, 퇴비사, 퇴비저장실, 액비저장조, 건조발효 등 다양하다.

한·육우 소규모 농가의 경우 대부분 재래식 축사로 분뇨처리시설이 미비하고 퇴비사가 없어 이용이

업계소식

미비한 실정이다. 또 중 규모나 육우는 마을에서 벗어나 사육하는 형태가 많고, 생우분을 퇴비사에 쌓아 처리하는 등 파리 및 악취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부 재래식 축사는 비가 올 때 흘러나오는 분뇨로 토양 및 농경지가 오염되는 실정이다.

보고회에서 개선방안으로 소규모 사육농가는 퇴비사를 설치와 복합미생물제 사료를 공급하고, 악취를 줄일 수 있는 은나도 등의 물질을 살포하는 것이 제시됐다.

돼지 축사 소규모농가 및 밀집지역은 퇴비사 설치와 저장조, 폭기조를 설치해 악취저감제와 광합성 미생물제를 공급하도록 했다.

러시아 청정 사료로 유기농 한우 키운다

러시아의 청정 사료용 곡물을 싼값에 들여와 국내 축산 농가에 보급, 품질 좋은 유기농 소(牛)를 키우게 된다.

국내에서는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탓에 유기농 사료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 호주 등에서 수입된 것은 너무 비싸 문제였다. 호주산은 1kg당 750원, 중국산은 650원 선이다. 일반 사료의 2배 정도인 1kg당 550원 선에 만 맞추면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지난달 23일 안성 한경대 120명의 교수·학생은 러시아 동부 아무르주(州)의 '오르따 농장'을 방문했다. 1500만평에 이르는 대농장으로, 콩·귀리·보리 등 한국에 보낼 유기농 사료곡물을 재배하는 곳이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한경대가 품질을 검증해 주면 국내 기업이 사들여 판매하게 된다.

유기농 사료는 씨앗 단계부터 3년간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아야 인증 받을 수 있고, 이 사료로 키운 소는 고가의 유기농 축산물이다.

한경대 친환경 인증센터 남기웅 소장은 "오르따 농장은 워낙 광활해 농약이나 비료를 주기 어렵고, 겨울에는 영하 40도로 기온이 떨어져 병·해충에 강한 것

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 농장에서 거둔 작물은 안성의 장원낙농영농조합이 지난 5월 처음으로 컨테이너 3개 분량을 수입해 사료로 가공하고 있다.

조합 박순철(51) 대표는 "4년 전 구제역으로 온통 시끄러울 때 친환경 축산물만이 살길이라는 생각해 러시아 농장 발굴에 나섰다"고 말했다.

'바이오칩' 기술로 불량 우유 가려낸다" ..DBT, 유방염 우유 가려내는 기술 제품화 성공

유방염에 걸린 젖소에서 짜 낸 우유를 착유단계에서 손쉽게 가려냄으로써 우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국내 바이오벤처기업에 의해 개발됐다.

나노바이오 융합기술 전문기업인 디지탈바이오테크놀러지(이하 DBT.대표 장준근)는 바이오칩(LOC) 기술을 이용한 우유 체세포 분석기술에 대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보건신기술(HT)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바이오칩 기술은 특정 젖소에서 짜낸 우유에 체세포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우유의 체세포 개수를 검사하는 것은 유방염에 걸린 젖소의 경우 우유를 짜 때 체세포가 함께 나오는 특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유방염에 걸린 소에서 나온 불량 우유를 미리 가려냄으로써 양질의 우유와 섞이는 것을 차단해 전체적으로 우유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유방염에 걸린 젖소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현미경으로 직접 우유를 분석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칩 장비는 노트북 크기에 불과해 휴대가 간편한 데다 체세포 분석을 위한

업계소식

핵심 부품을 값싼 1회용 플라스틱 소모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우수 샘플과 분석 시스템의 직접 접촉을 차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고, 유해 시료로 인한 기계 시스템 내부의 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이 회사는 이번 시스템에 대해 이미 과학기술부 신제품인증(NeP 마크) 및 유럽 제품인증(CE)을 획득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의기술인증 및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도 받았다.

장준근 사장은 "이번 바이오칩 기술을 이용하면 1등급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내부 품질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내년부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에 대비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원 지리산검정회 정기총회 개최



남원 지리산 검정회(회장 황형연)는 지난 2006년 8월 8일 남원소재 새만금 슷불갈비가든에서 부부동반 4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6차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우수농가 표창 및 임원단의 신규 선출문제 등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 지리산검정회장을 역임하셨던 박인석 지리산낙농농협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의 낙농가가 현 8900여호에서 5000여호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 남원지역의 낙농가는 젖소의 개량 및 검정을 통한 경영합리화로 이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남원 지리산검정회는 해마다 회원 중에서 우수농

가를 선정 표창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기목장의 구자일 회원이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축산연구소, 신규연구사 가족 초청 사업설명회 개최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8월24 신규연구사 및 배우자, 부모님 등 가족 22명을 초청 사업설명회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초청된 신규연구사 가족들과의 행사는 "연구소에서 하는 일과 주요성과 설명 및 간담회 자리를 가진 뒤 '축산연구의 과거, 현재, 이벤트, 미래, 첨단분야로

구분, 판넬 95종과 전시물 200여종을 비치하여 개관'하는 축산홍보관과 생명 과학관 등 연구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날 가진 행사를 계기로 신규연구사들은 자기의 소중한 일터임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고, 가족들은 잘 몰랐던 축산연구소에 대해 알게 되고, 서로간의 공감대 형성과 소비자로서 축산연구의 중요성을 인식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축산연구소는 8월 24일과 25일 한우 번식우 50농가를 대상으로 "자가 인공수정 능력향상을 위한 소 인공수정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

장수한우 브루셀라 통합 방역대책반 운영

"8월21일부터 전 두수 대상으로 채혈검사 실시"

장수한우사업단은 소 브루셀라 발생에 따른 장수군 축산농가 피해예방을 위해 방역대책을 대폭 강화, 전 두수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한다.

사업단에 따르면 농림부로부터 소 브루셀라병 방역 보완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8월14일 브루셀라 채혈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우사업단, 장수축

업계소식

협, 한우협회장수군지부 등 행정과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통합 방역대책반을 운영, 오는 8월21일부터 9월30일까지 장수한우 전 두수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업단은 우선 14개 채혈반을 편성, 읍면별 공동 채혈을 실시하고 공동 방역반을 병행 운영,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단계별 방역지표를 설정,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사 및 방역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부터 전 두수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검사를 연 2회 실시, 지속적인 방역실시 등 2011년까지 소 브루셀라병을 완전 근절시키자는 방침이다.

특히 정확한 개체기록관리 및 정기검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생산이력관리로 질병없는 청정 한우, 세계 최고의 장수한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 개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전국을 4대 권역으로 하여 지난 8월 24일과 25일, 29일, 9월 1일 각각 경기 이천 설봉호텔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 전남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대구 컨벤션센터에서 '축산현안 해결을 위한 축산인 결의대회'를 갖고 현재 축산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축산인들은 '축산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6대 축산 현안(한미FTA협상 저지/농지법개정/도축세 폐지/가축분뇨 자원화/식품안전저신설 반대/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을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축산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칠 것을 다짐했다.

축산인들은 아울러 축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뒷전으로 한 채 각종 규제로 축산을 위축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을 규탄하며, 6대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남호경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전

국한우협회장)은 대회를 통해 "개방의 파고와 각종 규제로 고사직전의 위기에 놓여있는 축산업을 우리 손으로 회생시켜야 한다면서 오늘 결의대회가 축산인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역할을 다지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또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제들은 전 축종에 걸친 생산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가 열린 이천에는 이규택 의원(한나라)과 천안에는 홍문표 의원(한나라), 강기갑 의원(민노당)이 각각 참석해 국회 차원에서 축산인의 현안 해결 노력을 뒷받침할 것을 다짐했다.

농림부_미산쇠고기 수출작업장 확인 점검차 출국

국내 전문가 3명은 지난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확인 점검을 위해 출국했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우리측이 지난 5월 미국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미국이 보완조치 내용을 통보해 옴에 따라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기초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시·군지부장회의

한우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우영목)는 9월 14·15일 양일간 열리는 한우인의 날 행사를 앞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난 24일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군지부장회의를 열고 한우인의 날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우영목 지회장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모든 시·군지부회원농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사준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한우인의 날 행

사 첫째 날은 한우농가들의 한마당잔치로 공식행사가 열리고 둘째 날에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시간으로 꾸며지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 들어온 호주산 수입생우가 경기도 화성에 일부 입식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현수막 개시, 이동상향 감시 등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우협회 판매점 인증제사업 설명회

전국 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18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서 한우판매점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2명의 판매점 업주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실을 가득 메워 한우 판매점 인증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남호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우는 그 동안 어지러운 유통환경으로 본의 아니게 농가와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깨끗한 시장을 만드는 첫 걸음이며, 한우의 유통 질서를 잡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박선빈 차장은 “이렇게 많은 업체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리라고는 미처 예상 못했다며 판매점 인증제는 업주들이 단속 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높은 참여 열기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29일 접수를 마감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전문판매점을 인증·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평정보도합니다

지난달 8월 호에 보도되었던 이천시 홀스타인발대식 기사중 이천시 검정연합회 김동식회장이 아니라, 김천호회장으로 정정 보도합니다.

미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확대 보류

최근 캐나다에서 광우병 감염 소가 발견되면서 광우병 예방조치가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미 행정부가 캐나다산 쇠고기와 소에 대한 수입 확대 계획을 보류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28일(현지시간) 그동안 준비해왔던 캐나다산 쇠고기 및 소 수입 확대 계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나다의 광우병 예방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만한 광우병 감염 소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드 로이드 미 농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안전) 규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소비자와 가축을 보호하고 있는지와 안전상에 의문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류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 정부는 2002년 태어난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캐나다 정부의 광우병 감염 소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수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소에게 가축 부산물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광우병은 소들이 다른 소의 오염된 조직을 먹었을 때 발생,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간도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으면 광우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에 감염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 병으로 150여명이 사망했다.

미국, 폭염으로 젖소 대량 폐사 우유생산량 감축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10일 이상 연일 세자리 온도(화씨 100도, 섭씨 38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매일 젖소 160두 이상이 폐사하여 총 폐사두수가 1만6천두 이상에 달하고 우유생산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보

해외소식

도되었다. 특히 열사병으로 일부 목장은 매일 1-2두의 젖소가 죽어나가고 특히 심한 목장은 폐사율이 2%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폐사축 처분시설도 가동한계를 넘어 일부 폐사축은 땅에 매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량도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 예년 생산량의 10-20%정도 유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액수출회사 중국에 미국정액 공급

캐나다의 유명 정액 회사인 알타사(Alta)의 수출전담 회사가 미국 최대 민간정액회사인 에비에스 (ABS)사의 젖소와 육우정액의 중국내 공급 판매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내 우유소비가 늘면서 젖소생산성증대를 위한 수입정액수요가 늘어왔는데, 알타사는 그동안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우수한 유전자원 공급은 물론 각종 개량기술을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공급계약을 계기로 북미산 유전자원의 중국내 시장 점유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 성감별 정액 세계시장 진출 예정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민간정액회사인 '제너베이션'사는 최근 세계시장에 성감별정액을 공급하기 위해 밴쿠버에 있는 유전공학 전담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성감별기술은 미국의 세계적 성감별 정액처리회사인 'X-Y'사의 기술을 '04년도에 도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동안 최고 수준의 성감별 정액생산을 위해 캐나다는 물론 중국에서 광범위한 현장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너베이션사는 지난 '03년에 캐나다 시장에 성감별 정액을 도입한 최초의 회사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서 광우병 감염 소 또 확인"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확인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앨버타주에서 광우병의 새로운 사례가 확인됐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5번째이며 광우병이 캐나다에서 처

음으로 확인된 2003년 이후 8번째 사례라고 캐나다 언론이 보도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앨버타주에서 2마리,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매니토바주에서 각각 1마리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CFIA는 "이번에 광우병으로 확인된 소의 어떤 부분도 식용이나 사료용 유통 시스템에 유입되지 않았다"며 "이전처럼 완벽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미국 현지 사찰 후 수입 금지조치 철회, 향후 수입 전망에 대한 검역 실시

일본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은 광우병 우려로 시행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철회하며 미국과의 팽팽했던 긴장관계를 해소하게 됐다.

토머스 슈퍼 주일 미 대사는 '이번 수입 재개 발표로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에게 있어 일본 시장은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효자시장'이다.

'일본 정부와 검역 당국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 시스템이 매우 과학적이며, 국제기준보다도 우수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중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이 포함된 것이 발견된 뒤,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수입 금지조치를 내렸다. 이같은 수입 금지조치 철회는 일본 검역단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현지를 사찰하고 돌아온 뒤 결정된 것이었다.

일명 소해면양상뇌질환(BSE)으로 알려진 광우병은 가축에게 일어나는 퇴행성 뇌신경질환이다. 만약 사람

해외소식

이 광우병에 감염된 고기를 먹을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는 치명적인 신경질환에 걸리게 된다.

일본 농수성 산하 광우병자문위원회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승인한 후, 가와사키 지로 후생상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조치 철회를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일본에 대한 쇠고기 수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국이 자국의 수출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이행하길 강력히 희망한다. 하지만, 만약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은 수입금지 조치를 재개할 것이다.'

미국이 광우병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던 일본 검역관들은 현지 쇠고기 수출 작업장 35곳에 대한 한 달여간의 사찰을 마치고 23일 귀국했다.

가와사키 후생상은 광우병 유발 위험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전량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철회된 수입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수입된 쇠고기 중 일부에 대해서만 검역이 이뤄졌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 또한 일본의 수입 재개 결정에 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방미 기간 동안 여러번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시장에 다시 수출되길 고대하고 있다.'

한편, 27일 일본의 쇠고기 수입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주문이 폭주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금지 조치가 시행된 2003년 12월 전까지, 일본은 미국 쇠고기 업계의 최대 소비시장이었다.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2005년 말 철회됐지만 올해 1월 재개됐다.

일본, 소의 수정 적기 추정자 개발

일본 가축개량사업단은 암소의 발정 시간부터 수정 적기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정적기추정자」를 개발했다. 시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척」, 암소의 발정과 난자의 상태를 기록한 「자척(雌尺)」, 수정시점과 정자의 수정 능력을 나타내는 「웅척(雄尺)」의 세 가지를 같이 사용한다. 동 사업단의 나가오카 고문은 「인공수정기술의 섬세함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추정자는 플라스틱제 슬라이드화 하여 사용한다. 암소의 발정이 확인되면 시간척에 자척의 발정시간을 합치고 거기에 웅척을 더한다. 자척의 난자능력의 성쇠를 나타내는 부분과 웅척의 정자능력부분이 겹쳐지는 정도를 보면 언제 수정하면 수태하기 쉬운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추정척에 처음부터 기록되어 있는 참고패턴 수치는 가축개량센터의 미야자키목장에서 90%의 수태율을 얻은 것이다.

발정 평균시간은 15시간이며, 배란 평균시간은 발정개시 후 30시간으로, 수정은 16시간 후에 해왔다. 여기에서 난자와 정자의 능력 성쇠시간을 산출하여 추정척에 도형으로 나타낸다. 인공수정의 적기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존재하며, 개체차나 지역성, 계절과 성별 등의 영향도 포함하면 여러 견해가 있다. 나가오카 고문은 「어디까지 '추정'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경험상 얻은 수치를 도형화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추정척은 길이 25cm, 폭 4cm이다.

일본, 수입산 생우역제를 위한 표시제 강화

일본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교잡우를 역제하기 위한 표시강화제가 일본에서 본격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농림수산성 산하 「가축의 유전 자원 보호에 관한 검토모임」에서는 일본 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 화우정액에 바코드를 인쇄해 유통관리를 엄격히 하는 방안과 쇠고기 생산이력

해외소식

제를 활용하여 순수한 일본소만을 표시하는 제도 등 일본소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는 3년 연속 호주등지에서 육우송아지가 2만두이상 수입되고 있으며, '05년에만 2만4천588두가 수입되었는데 이중 일본소와 교잡된 소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자국내 화우농가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대나무펠릿으로 젖소 유지방을 향상

일본 에히메현 축산시험장은 고비유 젖소에게 펠릿화한 대나무를 급여한 결과 원유의 유지방률이 높아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일반 소에게 주어도 문제가 없어 수입 사료의 대체품으로 기대된다. 이에 키 주임연구원은 방치된 죽림 등 미 이용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잘라 낸 대나무를 잘게 부수고 건조시킨 다음 단단하게 굳힌 것이 대나무펠릿이다. 분쇄하면 침상의 섬유가 남기 쉽지만, 섬유를 부드럽게 하는 특수가공을 통해 사료화 했다. 크기는 길이 약 2cm의 원통형으로 섬유의 비율이 83%로 높지만, 조 단백질은 약 3%밖에 들어있지 않다.

1일 생유산출량이 15kg정도인 저비유 젖소와 25kg의 고비유 젖소로 나누어 실험했다. 건초를 12kg 주는 실험구와, 대나무펠릿 4kg, 건초 5kg, 단백질 보충을 위해 헤이큐브 2kg를 섞은 실험구에서 유량과 유성분을 비교했다. 양쪽 실험구 모두 유량은 거의 같았으나 고비유소에서 대나무펠릿구의 유지방률이 4.3%가 되어 건초만을 준 실험구보다 0.5% 높았다.

이에 키 주임연구원은「대나무 특유의 성분이 제1위 내의 세균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대나무를 소에게 먹인 다른 시험기관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장내 세균 층의 개선으로 분이 딱딱해졌다. 또한 대나무펠릿은 물에 녹이면 분상이 되기 때문에, 섬유를 소에게 준 경우에는 반추자극을 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대나무펠릿의 단백질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동 축산시험장은 현재 간장찌꺼기를 30% 섞은 대나무펠릿으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 8월기준 최고 젖소종모우 10위 명단

미국 홀스타인협회가 발표한 8월기준 미국내 최고 젖소종모우 10위 잠정명단은 다음과 같다.

1. 볼튼(Sandy-Valley Bolton-ET *TV*TL) TPI +2028
2. 저스티스(O-Bee Manfred Justice-ET *TR*TL) TPI +1947
3. 버크아이(R-E-W Buckley-ET *TV*TL) TPI +1899
4. 빌리온(J-K-R BW-Marshall Billion-ET *TV*TL) TR +1892
5. 스트림(Apibus Jet Stream-ET *TV*TL) TPI +1879 (97% RHA)
6. 토이스토리(Jenny-Lou Mishi Toy Story-ET *TV*TL) TPI +1873
7. 샤키(Jeweled-Acres Shaiky-ET *TV*TL) TPI +1862
8. 알톤(Bo-Irish Alton-ET *CV*TL) TPI +1846
9. 부머(Fustead Hershel Bomber-ET) TR +1846
10. 마리온(Mezard Marion-ET *TV*TL) TPI +1826

캐나다, 8월 최고 젖소 종모우 10두 명단

캐나다 CDN에서 발표한 8월기준 최고능력 젖소종모우는 다음과 같다.

1. 타이타닉 Hartline Titanic-ET +2311 LPI
2. 로맥스 Fortale Lomax +2260 LPI
3. 인투르더 Pennview Intruder +2229 LPI
4. 골드윈 Braedale Goldwyn +2096 LPI
5. 돌만 Regancrest Dolman-ET +2094 LPI
6. 몬티 Regancrest-JB Monty-ET +2076 LPI
7. 몬티 Hartline Tom-ET +2052 LPI
8. 지방시 Brigeen Givenchy-ET +2042 LPI
9. 가터 Welcome Garter-ET +2037 LPI
10. 포춘 To-Mar D- Fortune-ET +2024 LPI